

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 
**첫째는 절대적 축복이다.**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위해서 그 아들이 오신 것이다. 그 분이 아들이시기에 인생의 근본 저주를 해결할 수 있었고, 그 아들의 증거가 부활이다(롬1:4).

**둘째는 유일한 축복이다.**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유일한 한 분이시다.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유일한 한 분이시다. 정말 유일한 그 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?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.

**셋째는 완전한 축복이다.**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분을 영접할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이다. 그 분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, 세상에 불쌍한 자가 부활을 믿은 우리라고 했다(17-19절). 부활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.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다.

**넷째는 영원한 축복이다.**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다(51-52절). 악한 자는 심판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,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(요5:29).

**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세가지 실제적인 축복을 내 삶에서 누려야 한다.**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을 체험한 자가 된다. 바울이 “그 분이 내게도 나타나셨다”(8절)고 고백한 것처럼, 이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. 부활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나를 살리고, 세상과 교회도 살린다.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씨앗이다.

1. 내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그 분을 영접한 순간 내 옛 생명은 끝난 것이다. 이것을 “해방의 복음”이라고 한다.

1) 그래서 “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”(고후5:17)라고 한 것이다. 과거 문제의 해답이다.

①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한다. 과거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.

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자리 잡은 과거(내 안의 욕심, 실패, 상처들)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. 이 과거의 어두운 것이 내 생각 속에, 내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. 각인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다.

②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방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.

그래서 “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”고 한 것이다(롬8:1-2) 법이라는 단어는 권세라는 의미도 있고, 내 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오래된 틀, 매카니즘이다.

여기에 잡혀 실패한다. 더 이상 내 과거문제가 나를 붙잡을 수 없다. 내 생각의 틀, 매카니즘을 바꿔야 한다.

2) 이제부터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(갈2:20). 현재 문제의 해답이다.

① 내 현실과 오늘 속에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이 또 올 수 있다(먹고 사는 문제, 인간 관계의 갈등, 질병등).

그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다.

두려워하고 낙심만 안 해도 된다.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. 그래서 그 분이 부활하여 절망을 박살낸 것이다.

② 부활하여 살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, 인도를 받고, 그 능력으로 살라는 것이다.

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도우셔야 하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. 그 분이 성령이다(요14:16-18).

3) 이제 남은 것이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.

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부활하여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분이 준비해놓으셨다는 것이다(욘23:10)

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셨다는 것이다(요14:6).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고 가고,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다.

나는 일본 뒤의 일도 모르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분이 길을 알고, 그 분이 길을 준비해놓으셨기 때문이다.

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인도 받으라. 내 욕심, 내 기준의 인본주의는 결국 실패하게 하고 무너진다.

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구름을 떠올려 내리신 이유가 그것이다. 미련하게 보이는가?

지금의 과학은 그 날, 그 한주간의 날씨를 미리 보고 준비해서 간다. 하나님은 그 과학도 움직이시고, 그 과학도 뛰어넘어 일하신다(초과학, 영적과학). 정말 하나님을 알면 과학처럼 정확하고, 소름 끼칠 정도이다(엡3:20).

2. 이 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두 번째의 축복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다. 이것을 “승리의 복음”이라고 한다.

1) 그것이 첫 인생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주신 첫 복음(원시 복음)의 언약이다(창3:15)

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, 갈등, 실패의 배후 속에 이 사단이 있는 것이다. 가장 완전했던 아담부터 당한 것이다.

① 자꾸 실패하는가? 자꾸 거짓말하고, 미움과 분노가 나온다. 그것이 발전하면 사기꾼도 만들고 살인도 만든다.

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.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(요8:44)

② 자꾸 불안하고 놀리는가? 어떤 이유론 불안하고 놀리게 하는 자가 마귀라고 했다(행10:38)

죄를 지어서 양심에 눌릴 수도 있고, 정직하게 살면서도 이유 없이 놀리는 시간이 올 수 있다. 영적 문제이다.

그 영적 문제, 마귀의 일을 떨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(요일3:8)

2)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다.

“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,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냐?”(55절). 여기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
① 사망 권세를 가진 자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다(시49:15). 도적질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이다(요10:10)

이 영적 사실 알아야 이 땅의 빈 곳, 버려진 곳, 죽어가는 곳이 왜 생기는지를 알고, 답도 줄 수 있다.

② 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한 시간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.

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다. 이 결론을 알기에 살전5:16-18이 가능한 것이다.

이 승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 될 때 마귀는 별별 떨고 먼저 알고 도망간다(수2:11, 신28:7)

3. 이 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세 번째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.

이것을 “영원한 복음”이라고 한다.

1)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서는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다(요12:24).

복음 때문에 버린 것, 잃어버린 것, 심은 모든 것은 반드시 100배와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(막10:29-30)

그래서 어떤 경우도 주의 일을 하고, 선한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(58절)

2)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축복이다.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날이 온다고 했다(50절)

언제인가?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.

구약의 나팔절이 이것이다. 승리를 상징하고,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 잡으라는 것이다.

**결론-이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한다.** 그들이 시대를 살리는 씨앗이 된 것이다.

세가지가 통하게 될 것이다. 보좌와 통하고, 우리가 살릴 현장과 통하고, 영원히 누릴 미래와 통하는 것이다.

